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암성 통증 어휘조사

천안시 동면보건지소

장 세 권

서 론

본 론

통증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정의적,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1] 암의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다[2,3]. 암에 의한 통증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나 가족으로 하여금 치료를 포기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4,5], 적절한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6,7]. 통증은 병태생리에 따라 통각수용성(nociceptive) 통증과 신경병증성(neuropathic) 통증으로 나누어 지기도 하나[8] 보통 체성 통증(somatic pain), 내장성 통증(visceral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으로 흔히 나누어지며[9], 통증의 성격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에도 차이가 있다[10]. 따라서 암환자의 통증을 평가함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뿐만 아니라 통증의 성격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암환자의 통증 표현 양상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성인 암환자들이 암성통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사하고 통증의 성격(somatic, visceral, neuropathic)에 따른 통증의 표현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암성 통증을 정확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통증조절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200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6개 대학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단, 혈액암은 제외) 40~60세 사이의 성인 환자로서 의식이 명료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자 75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각 기관의 조사자는 3번 이상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조사자가 직접 대상 환자를 면담하여 암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암환자가 표현하는 통증 어휘를 조사하였다. 다기관의 조사자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성격을 전문가적 식견에 근거하여 체성 통증(somatic pain), 내장성 통증(visceral pain),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암 환자 75명에서 통증 표현에 사용되었던 어휘들을 추출하였고, 그 중 통증표현이 한데 묶어진 상태로 진술된 경우에는 그 통증표현의 어휘들을 각기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통증부위를 지적하거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 반응을 표현한 어휘는 삭제하였고, 통증의 감정적, 평가적 표현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해서 총 183개의 어휘로 추출되었고(중복 포함) 추출된 통증표현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52종류의 어휘로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결 론

통증의 성격에 따라 표현된 어휘들을 보면, 체성 통증의 경우 '쭈시다'가 14회로 가장 많았고, '결리다', '끊어지는 듯하다', '답답하다', '뜨끔뜨끔하다', '목지근하다', '빠근하다', '우리하다', '지긋이 아프다', '찢어지는 듯하다', '채찍으로 후리는 듯하다'가 각각 2회로 그 다음 순이었다. 내장성 통증의 경우 '쭈시다'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답답하다', '빠근하다'가 8회였으며, '쓰리다' 7회, '애리다' 5회, '뒤틀리다' 4회, '둔하다', '묵직하다', '짚누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에는 쭈시다가 13회로 가장 많았고, '땡기다', '시리다', '화끈거리다'가 5회로 그 뒤를 이었으며, '따갑다' 4회, '저리다', '찌르다'가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평가 도구 항목' 중 통증의 강도 측정과 더불어 통증의 병태생리에 관한 성격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체성 통증, 내장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의 표현에 흔히 사용되는 어휘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통증 평가자로 하여금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통증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통증군별로 빈도와 특이성, 그리고 군 안에서 의미의 중복을 피하여 각 통증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휘를 각각 5개씩 선택하였는데, 체성 통증의 경우 '쭈시다', '결리다', '찢어지는 듯하다', '빠개지는 듯하다', '찌르다'가 선택되었고, 내장성 통증의 경우 '쭈시다', '빠근하다', '쓰

리다', '뒤틀리다', '꺾어짜는 듯하다'가 선택되었으며, 신경병성 통증의 경우 '화끈거리다', '저리다', '뻗치다', '찌릿찌릿하다', '피부가 닿기만해도 아프다'가 선정되었다.

참 고 문 헌

- 1) Melzack R.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 Major properties and scoring methods. *Pain* 1975;1: 277-99.
- 2) Levy MH. Pharmacologic treatment of cancer pain. *N Engl J Med* 1996;335:1124-32.
- 3) Levy MH. Pain management in advanced cancer. *Seminars in Oncology* 1985;12:394-410.
- 4) Cleeland CS. The impact of pain on the patient with cancer. *Cancer* 1984;54:2635-41.
- 5) Ventafridda V, DeConno F, Ripamonti C, Gamba A, Tamburini M. Quality of life assessment during a palliative care program. *Ann Oncol* 1990;1:415-20.
- 6) Bonica J. Treatment of cancer pain: current status and future needs. *Advances in Pain Research and Therapy. Proceeding of the Fourth World Congress on pain.* New York, Raven press 1985;9:589-616.
- 7) 최윤선, 홍명호. 임종진료에 관한 연구: 말기 암환자의 통증 조절. *가정의학회지* 1995;16:269-85.
- 8) Twycross R. General categories of pain. In: Twycross R, (eds). *Pain relief in advanced cancer.* New York:Churchill Livingstone 1994;55-78.
- 9) Payne R, Gonzales G. Pathophysiology of pain in cancer and other terminal disease. In: Doyle D, Hanks GW, MacDonald N, editors.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93;140-8.
- 10) 한국 호스피스·완화의학연구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암환자의 통증평가. In: *암성통증관리지침.* 서울, 2001;11-22.